

새 보금자리 첫 등교 인화학교 학생들

“도가니 악몽’ 벗어 행복해요”

“아이들이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1일 오후 광주지역 한 교육시설. 광주 인화학교를 다녔던 학생 21명이 새롭게 동지를 들고 첫 수업을 시작한 이곳에서 학생들은 모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이 교육시설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초등 1학년(3명), 중등 2학년(11명), 고등 1학년(7명) 등 모두 4학급의 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을 맞았다. 학생들의 손에는 저마다 교사들이 준비한 노란 풍선과 빨간 장미꽃이 들려있었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교실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빙크로젝트가 설치돼 있고, 새싹과 나무로 장식된 복도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과 간단한 수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특히 ‘기능

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라는 문구의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건물 1층 복도 끝에 마련된 급식소에서 점심 메뉴로 나온 볶음밥을 먹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교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날 오전 타고 등교했던 노란 통학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특히 이날 학생들과 함께 등교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수업모습과 교육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학교 시간까지 학교를 지켜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행복한 학생들의 얼

굴만큼이나 이들을 맞은 교사들의 얼굴도 기대감으로 벅차있었다. 교원은 초등학교 과정 1명, 중학교 과정 4명, 고등학교 과정 2명 등 모두 7명의 교사와 함께 수화통역사, 장애학생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공익근로위원 포함) 등이 보조인력으로 배치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폭로해 파문됐다 복직된 최사문(47) 교사는 “도가니 파문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가르치는 교사들도 함께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생들은 다음달 23일 까지 이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내년 2월부터는 광주의 또 다른 학교로 옮겨 1년간 수업을 받은 뒤 2013년에는 공립 특수학교인 ‘선유학교’에 배정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피부미용은 내가 최고” 제23회 광주시장배 미용예술경기대회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피부미용 부문에 참가한 선수들이 열린 경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경찰, 민원인 서비스 달라진다

출석요구서 고소요지 사전 통지

광주지방경찰청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지난달 20일 피고소인에게 고소당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 통지제’를 도입한 데 이어 1일부터 수사 및 형사 민원인 출석요구서에 해당 경찰관서 위치가 표시된 약도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편을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요지 사전 통지제는 출석

요구서에 고소요지를 200글자 미만으로 기재, 피고소인 등이 내용에 따라 조사를 사전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개선된 출석요구서에는 변호인 참여제, 조사관의 편파수사,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제도 및 수사 이의신청 등을 안내하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윤현석기자 chada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4분 해질 17시 38분 달돋이 12시 52분 달질 23시 46분

우산 챙기세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이나 아침에 비가 내리겠음.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군산, 남원, 흑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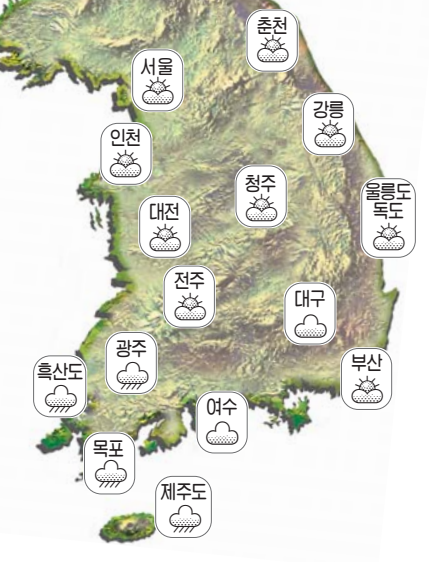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Sea Area, Direction, Wind, and Visibility. Rows include (오전) 바다, (오후) 바다, and (주강남) 바다.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Weather. Days range from 3(목) to 8(화). Weather icons and precipitation amounts are shown.

장애인 신상정보 유출 물의

북구 건국동주민센터 안내문... 부모들 강력 항의

광주 북구 건국동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담은 공문을 주민들에게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일 오후 광주 북구청을 항의방문해 “얼마 전 광주 북구 건국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 재관정 안내문을 해당 가정에 보냈다”며 “관내 모든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안내문을 보내

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공개한 안내문에는 건국동 거주 장애인 16명의 이름과 장애유형, 등급, 연락처, 주소, 재진단 예정일 등 개인 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한 30대 여성은 안내문을 받고 “아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까발려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애인부모연대 장우철 회장은 “다른 곳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와관련 해당 주민센터와 북구청 측은 “신입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라며 “동장과 담당직원들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문제의 안내문을 회수하고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모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 특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앞으로는 장애인 가족들이 마음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 용봉지구대·서구 풍암파출소 개소

거주인구 증가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광주시 북구와 서구 지역 치안을 맡을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와 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가 1일 각각 개소했다.

북구 용봉동 택지지구 일원의 치안을 담당할 용봉지구대는 연면적 322.47㎡의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4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했다.

경찰관 33명이 근무하는 용봉지구대는 인구 5만명이 거주하는 용봉동

일원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서구 풍암1로 33번지에 들어선 풍암파출소는 연면적 187㎡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난해 4월 착공해 지난 9월 1일 완공 직후부터 상주 근무를 시작했다.

풍암파출소는 경감급 소장을 비롯해 17명의 경찰관이 배치돼 4만여명이 거주하는 풍암동 일원 483만㎡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파출소 개소식은 각각 15일 오전에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amboree Home Repair)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about home repair services. Includes phone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Wedding, Guest Room, Sangmu-gu Tourism Hotel' featuring a bouquet of flowers and text about wedding services and hotel amenities.

Advertisement for 'Green Solar Power'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featuring solar panels and text about solar power subsidies and installation services.